

# 선관위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이석형 후보 자격 박탈 되나

### “사무소 운영 불법 선거운동”...광주·전남 경선 통과자 첫 고발 민주당 12일 재심관리위원회...광주 광산갑 재심 결과 주목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석형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사무소 운영하면서 전화를 이용해 지지·선전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광주·전남 18곳의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을 통과한 예비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직접 고발된 사례는 이 예비후보가 처음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타지역에서 선관위

의 검찰 고발이 이뤄진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 사례가 있어 이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재심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관위의 검찰 고발’이라는 동일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자격 박탈’이라는 같은 잣대를 적용할지 여부에 따라 민주당 광산갑 최종 후보 변경도 주목된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석형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 등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지 자신의 휴대전화 및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권리당원과 선거구민에게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민주당 경선에서 이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3(당내경선운동) 제1항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에 직접 이석형 예비후보를 고발함에 따라 향후 민주당 재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의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후보간 잣은 고소·고발은 경선 과정에서 정당이 직접 혐의 여부를 입증·확인하기 힘들어 경선과 재심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선거를 총괄하는 선관위의 검찰 고발은 후보자격 박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원혜영)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충남 홍성·예산 지역구 최선경 예비후보의 경선 자격 박탈을 의결했다.  
이처럼 ‘선관위의 검찰 고발 관련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강도 높은 대처를 하는 것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 후 자격이 상실되면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 사전에 ‘불법 후보’를 정밀 검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변수는 모

두 제거하고 선거전에 나서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재심관리위원회를 열어 광산갑 등지의 선거구에 대한 재심을 진행,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한편 광산갑에서 이 예비후보와 경쟁했던 이윤빈 예비후보는 지난 4일 “민주당 경선 결과는 이석형 예비후보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불공정한 결과물이다”며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했고 민주당 재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 광산을 박시중(왼쪽) 예비후보와 민형배 예비후보가 10일 광주시의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투표권 훼손”...순천 정치권·시민단체 선거구 개편 반발

### 행정소송·헌법소송 준비

순천시의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27만명)으로 인해 갑과 을로 나뉘는 대신 해룡면을 분리해 기존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통합되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파장도 커질 전망이다.  
순천시 해룡면 주민과 지역 시민단체는 10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선거구 획정으로 순천시민의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분구로 광양시에 편입된 해룡면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에 통과된 순천·광양·구례·곡성 갑과 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법 제25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소위 ‘게리맨더링’이다”면서 “헌법이 정한 주민들의 권리, 표의 등가성에 기초한 당연한

권리가 도둑질당하고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겠다”며 “순천시민의 주권을 무시한 민주당을 심판하고 바닥에 떨어진 순천시민의 자존심을 되찾아 촛불 시민다운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11일 오전 11시30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룡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순천 YMCA, 순천 YWCA, 순천환경운동연합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정치권에서도 선거구 획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생당 장성배 순천시 예비후보는 성명을 내고 “선거구 획정은 정치적 야합과 위헌적 결정”이라며 “시민들의 뜻을 모아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순천시 유권자의 평등권과 해룡면의 대의권을 박탈한 편법에

국회의 재량권 범주를 벗어난 선거 규정”이라며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편법과 반칙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구인 순천을 떠나 서울 영등포에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 이정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선거구 획정을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다음에 또 바뀌게 되고, 해룡 주민은 한번 쓰고 버려지는 비닐우산 취급을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순천시는 2월 기준 인구가 28만 1347명으로 선거구 상한선(27만명)을 넘겨 2개로 나뉘게 됐으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선거구획정안 재의를 요구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개정된 선거구는 인구 5만 5000명의 해룡면이 광양으로 통합돼 해룡면 유권자들은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를 뽑게 되는 등 게리맨더링 선거구가 됐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진일 기자 cki@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 민주 광주 광산을 재경선 결정 놓고 진흙탕 싸움

### 박시중 “당의 결정에 분노한다” 민형배 “불법·반칙 중앙당 확신” 투표권 배제 당원들 소송 준비

야야 하기에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승복하지 않는 민 예비후보에게도 크게 실망했다. 일부 당원과의 힘에 기대 판을 엮은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예비후보는 “민 후보는 김성진 전 예비후보의 당원 명부 과다조치를 불공정의 사유로 제시했으나 그것이 불법이라면 처음부터 경선에 임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이들 권리당원이 경선 결과를 오염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예비후보 자신은 직접 지역위원장으로서 모든 당원 명부를 관리했던 사람이다. 민 예비후보는 이미 당원 전체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며 “일부 당원을 제외하고 재투표를 하라는 것은 당원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산을 선거구 관리당원 50여 명이 참석해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민형배 예비후보도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최고위가 광산을 재경선을 결정한 것은 불법으로 취득한 권리당원 명부를 박 후보가 이용했

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민 예비후보는 “경선 전에 이미 박 후보가 불법 취득한 권리당원 명부 이용 문제를 당의 선관위, 공관위, 재심위 등에 공식 제기했다”며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정에 쫓기듯 경선이 치러졌고, 그때의 문제제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다. 경선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민주당 후보 중 윤창호법 시행 후 유승준을 한 후보는 박 후보 단 1명이다”며 “어떤 힘을 이용했는지 모르지만 박 후보는 유승준을 하고도 민주당 후보가 됐고, 페널티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선 과정에서 한 번도 상대 후보를 비방하지 않았지만 이번 만큼은 시민들의 소중한 투표권을 위해 밝힌다”며 “신인의 탈을 쓴 구태정치와 끝판왕은 박 후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하고 광산을 선거구에서 사퇴했던 김 전 후보가 과다 조희한 권리당원 1400여 명을 배제한 뒤 재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여수 시민으로 살겠다”...주승용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주승용 국회의원(4선·여수=사신)이 10일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주 부의장은 정계 은퇴의 변으로 호남 정치 분열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물어 호남 중진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운 것은 물론 호남 정치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많은 시간, 밤잠을 설치며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고민한 끝에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1991년 전남도위원을 시작으로 여천군수, 초대 통합 여수시장, 4선 국회의원에 국회의원이라는 과분한 직책까지 수행했다”며 “저를 믿고 8번이나 당선시켜 주신 여수시민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여천군수 시절 최초로 제안, 3선 의원때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EXPO)’는 정치를 하면서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 여수는 연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로 자리 잡고 있어 제가 꿈꿔왔던 여수 발전의 초석은 많이 이뤄진 것 같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순탄치 않았던 정치 역정에 대한 회고도 밝혔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지역민들이 국민의당을 성원, 38석의 힘으로 거대 양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해 오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분열된 것이 가슴 아프다”며 “이에 대해 국민과 호남 지

역민들께 제대로 된 사죄를 아직 못했고 부족하지만 저라도 책임지고 싶다”고 불출마의 배경을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제 열정과 능력을 갖춘 새로운 인물이 여수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 주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평범한 남편과 가장이 되어 여수에서 여수 시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